

大學章句 새겨보이

[연재 제16회]

權 五 達

편집위원



대학장구 서 [承前]

天運循環，無往不復。宋德隆盛，治教休明。於是河南程氏兩夫子出，而有以接乎孟氏之傳。實始尊信此篇而表章之，既又爲之次其簡編，發其歸趣，然後古者大學教人之法、聖經賢傳之指，粲然復明於世。雖以熹之不敏，亦幸私淑而與有聞焉。顧其爲書猶頗放失，是以忘其固陋，采而輯之，間亦竊附己意，補其闕略，以俟後之君子。極知僭踰，無所逃罪，然於國家化民成俗之意、學者修己治人之方，則未必無小補云。

천운순환, 무왕불복. 송덕융성, 치교휴명. 어시하남정씨양부자출, 이유이접호맹씨지전. 실시존신차편이표장지, 기우위지차기간편, 발기귀취, 연후고자대학교인지법, 성경현전지지, 찬연부명어세. 수이희지불민, 역행사숙이여유문언. 고기위서유파방실, 시이망기고루, 채이집지, 간역절부기의, 보기궤락, 이사후지군자. 극지참유, 무소도죄, 연어국가화민성속지의, 학자수기치인지지방, 즉미필무소보운.

하늘이 정한 운수는 순환하니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이 없다. 송나라의 덕이 융성하여 정치와 교화가 아름답고 밝았다. 그리하여 하남河南 정씨程氏 두 분 선생이 출

현하면서 맹자의 전통을 이어받을 수 있었다. 진실로 이 《대학》책을 존중하고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널리 드러냈으며, 이미 또한 간결히 편차하고 그 취지가 이르도록 일으켰는데, 그런 다음에야 옛 사람들이 태학에서 사람을 가르치던 법도와 성스러운 경전과 현인의 전한 뜻이 찬란하게 세상을 다시 밝히게 되었다. 비록 나 주희朱熹가 민첩하지 못하지만 또 다행히 사숙私淑하며 더불어 얻어 들어서 배운 게 있었다. 돌이켜보면 이미 이루어진 책에 오히려 흐트러지고 자못 본래의 뜻을 잃은 부분이 있으니, 이 때문에 스스로 고루함을 잊고 구절을 찾아내 모아서, 중간에 또 나의 의견을 슬그머니 덧붙이고, 빠지거나 생략된 부분을 보충해 놓고 뒷날 제대로 바로잡을 군자가 나오기를 기다린다. 지극히 분수에 넘치는 짓이라 이 죄를 모면할 길이 없음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국가가 백성을 교화시키고 미풍양속을 이룩하려는 뜻과 배우는 사람이 스스로를 수양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조금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주】◎송宋 : 중국의 왕조국가 (960 1279) 이름이다. 오대五代(당

나라 말기에서 송나라 초기에 이르는 기간907~960)에 흥망한 후량後梁·후당後唐·후진後晉·후한後漢·후주後周를 가리킴) 말엽 서기 960년에 후주後周의 귀덕군절도사歸德軍節度使 조광윤趙匡胤이 진교陳橋에서 반란을 일으켜 후주를 멸하고 국호를 송宋이라 하였다. 연호를 건륭建隆이라 하고, 도읍은 변량梁(하남성 개봉開封)에 정하니 역사는 이를 북송北宋이라 한다. 정강靖康(제9대 흠종欽宗) 원년 1126년에 금金나라 군사가 변량을 공격하여 휘종徽宗과 흠종欽宗을 포로로 잡으니 이로써 북송은 망하였다. 다음해 제10대 고종高宗(조구趙構)이 남경南京(하남성 상구商丘)에서 제위에 오르고 뒤에 도읍을 임안臨安(절강성浙江省 항주杭州)에 세웠는데 역사는 이를 남송南宋이라 부른다. 마지막 임금은 조병趙昀(연호는 상흥祥興)으로 재위 2년 만에 1279년 원元나라에 망하였다. 북송과 남송을 합한 역사는 18 제왕이 320년을 이었다. 북송 때 송나라의 영토는 동으로 바다와 접하고, 북으로는 천진天津·하북성河北省 패현霸縣·산서성山西省 안문관雁門關을 이었고, 서로는 섬서성陝西省 횡산橫山·감숙성甘肅省 동부·청해淸海의 황수渾水 유역·서하西夏와 토번吐蕃의 접점이며, 남으로는 광서성廣西省과 월남越南을 경계로 하였으나 남송 때 금나라와 남북으로 갈라져 영토는 절반에 불과하였다. ◎하남정씨河南程氏 : 정씨는 정호程顥와 정이程 두 사람을 말하고, 하남은 이 두 사람의 본관本貫이며, 중국 황하黃河의 남쪽 지역에 있는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낙양현洛陽縣이다. ◎정호程顥(1032 1085) : 중국 북송北宋 중기의 유학자로 자는 백순伯淳이고, 호는 명도明道, 시호는 순純이다. 하남성河南省 낙양洛陽 출신이다. 존칭으로 명도선생이라 하고, 아우 정이程(이천伊川)와 함께 이정자二程子로 부른다. 아버지 정향程珦이 남안南安(강서성江西省 대유현大庾縣)의 판관이었을 때 주돈이周敦(염계濂溪)를 한번 보고 아들 형제를 그의 제자로 입문시켰다고 한다. 인종仁宗 가우嘉祐 때 26세에 진사가 되고, 섬서성陝西省 조호현調縣 주부主簿를 역임하였다. 그가 태주澤州(산서성山西省) 진성현晉城縣의 수령으로 있을 때는 ‘시민어상親民如傷’이라는 네 글자를 좌우명으로 삼고 큰 치적을 올렸으므로 백성이 그를 부모처럼 따랐다. 신종神宗의 부름을 받아 저작좌랑著作佐郎이 되었으나 왕안석王安石과 뜻이 맞지 않아 자청하여 지방관이 되었다. 철종哲宗이 즉위하고 사마광司馬光이 재상이 되자, 조정에 등용될 뻔하였으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병사하였다. 그의 학문적 태도는 만물일체관萬物一體觀에 입각하여 혼일적渾一的으로 천지의 생의生意를 체험하는 데 있었다. 그는 제자諸子·노장老莊·불교도 공부하였으나 결국 유학으로 복귀하여 자기 학설을 확립하였다. 그는 우주의 근본원리를 ‘이리理라 부르고, 사람은 모름지기 이를 직관적으로 파악

하여 순응해야 한다는 ‘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성즉리설性則理說’을 주창했는데, 그 사상은 아우 정이를 거쳐 주자朱子에게 큰 영향을 주어 송나라의 새로운 유학의 기초가 되었고, 정주학程朱學의 중핵을 이루었다. 저서에 《정성서定性書》·《식인편識仁篇》, 시에 ‘추일우성秋日偶成’ 등이 있다. 그의 전기는 주자의 《이락연원록伊洛淵源錄》에서, 유자遺著는 서필달徐必達의 《이정전서二程全書》에서 볼 수 있다. 아우 정이程 와 함께 정자程子라 통칭하는데 구분해 일컬을 때는 그를 정백자程伯子라 한다. ◎정이程 (1033 1107) : 중국 북송北宋 중기의 유학자로 자는 정숙正叔, 호는 이천伊川이고 시호는 정正이다. 하남성河南省 낙양洛陽 출신이다. 이천백伊川伯에 봉해졌으므로 이천선생이라 존칭된다. 형 정호程顥(명도明道)와 함께 주돈이周敦(염계濂溪)에게 배웠고, 형과 아울러 ‘이정자二程子라 불리며 정주학程朱學의 창시자이다. 철종哲宗 초에 사마광司馬光·여공저呂公著 등의 추천으로 국자감 교수가 되었고, 이어서 비서성秘書省 교서랑校書郎·승정전崇政殿 설서說書로 발탁되었다. 그러나 왕안석王安石·소식蘇軾 등과 뜻이 맞지 않았고, 당화黨禍를 입어 사천성四川省 부주州로 귀양간 일도 있다. 학자로서의 그는 《역경易經》에 대한 연구가 특히 깊었고,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의 철학을 수립하여 큰 업적을 남겼다. 그의 사상은 ‘지미至微(은隱)한 것은 이理(본체本體)요 지저至著(현顯)한 것은 상象(기氣·용用)이라 하여 일단 양자를 구별하고, 체體와 용用은 근원이 같으며 현顯과 미微에 사이가 없다’고 상관관계를 설명한 점에 특색이 있다. 그의 철학은 주자朱子에게 계승되어 《태극도설太極圖說》과 《태극도설해太極圖說解》에 나타나 있다. 학문의 방법도 형은 오직 정좌靜座를 주장하였으나, 그는 ‘경敬’을 중히 여겨 ‘거경궁리居敬窮理’에 힘썼다. 이와 같은 일도 주자에 의하여 집대성되었고, 송대宋代의 신유학인 정주학의 주축이 되었다. 저서에 《역전易傳》4권이 있으며, 그의 학설은 형의 학설과 함께 서필달徐必達의 《이정전서二程全書》에 수록되었다. 또 그의 전기는 주자가 지은 《이락연원록伊洛淵源錄》에 실려 있다. 형 정호程顥와 구분하여 정숙자程叔子라고도 한다. ◎주희朱熹(1130~1200) : 중국 남송南宋 때 휘주徽州 무원등源(안휘성安徽省, 지금은 강서성江西省) 사람이나 뒤에 건양建陽 고정考亭으로 옮겨 살았다. 자는 원회元晦, 다른 자는 중회仲晦이고, 호는 회암晦庵·회옹晦翁·돈옹遯翁·창주병수滄洲病叟이며, 별칭은 자양紫陽·운곡노인雲谷老人이다. 선조는 대대로 휘주 무원의 호족으로 아버지 위재韋齋(호, 이름은 송松)는 관직에 있다가 당시의 재상宰相 진희秦檜와의 의견충돌로 퇴직하고 우계尤溪에 우거寓居하였다. 주자는 이곳에서 14세 때 아버지가 죽자 그 유명遺命에 따라 호적계胡籍溪·유백수劉白水·유병산劉屏山을 사사하면서 불교와 노자의 학문에도 흥미를 가졌으나, 24세 때 이언평李延平을 만나 사숙私淑하면서 유학에 복귀하여 그의 전통을 계승하게 되었다. 그의 강우講友로는 장남헌張南軒·여동래呂東萊가 있으며, 또 논적論敵으로는 육상산陸象山이 있어 이들과 상호 절차탁마切磋琢磨하면서 그 학문은 비약적으로 발전 심화하여 중국사상사상 공전空前의 사변철학思辨哲學과 실천윤리實踐倫理의 체계를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19세에 진사시에 급제하여 71세에 생애를 마칠 때까지 여러 관직을 거쳤으나 약 9년 정도만 현

직에 근무하였을 뿐, 그 밖의 관직은 학자에 대한 일종의 예우로서 반드시 현지에 부임할 필요가 없는 명목상의 관직이었기 때문에 학문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의 학문을 저서를 통해서 관찰해 보면 46세까지를 전기, 이후 60세까지를 중기, 61세 이후를 후기로 하는 3기로 대별할 수 있다. 《주자연보朱子年譜》에 의해 전기 저서를 순차적으로 열거하면 《논어요의論語要義》·《논어혼몽구의論語訓蒙口義》·《곤학공문편困學恐聞編》·《정씨유서程氏遺書》·《논맹정의論孟精義》·《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팔조명신언행록八朝名臣言行錄》·《서명해의西銘解義》·《태극도설해太極圖說解》·《통서해通書解》·《정씨외서程氏外書》·《이락연원록伊洛淵源錄》·《고금가제례古今家祭禮》로 이어져 《근사록近思錄》의 편차編次로 끝맺었다. 이 전기는 북송의 선유先儒 주렴계周濂溪·장횡거張橫渠·정명도程明道·정이천程伊川의 저서 교정과 주례에 전념하고, 《논어》·《맹자》등은 차기次期の 예비사업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주자의 학문적 기초가 확립된 시기로서 그것이 《근사록》에 집약된 것으로 보인다. 그후에 논적이었던 육상산 형제와의 아호사鵲湖寺 강론에서 존덕성尊德性에 대해 도학道學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중기에는 《논맹집주혹문論孟集註或問》·《시집전詩集傳》·《주역본의周易本義》·《역학계몽易學啓蒙》·《효경간오孝經刊誤》·《소학서小學書》·《대학장구大學章句》·《중용장구中庸章句》등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서四書의 신주新註’가 완성된 점이다. 60세 때는 《중용장구》에 서문을 붙여 상고上古에서 후대까지 도학을 전한 성현聖賢의 계통을 밝혀 도학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후기에는 오경五經에 손을 대어 《석존예의釋尊禮儀》·《맹자요로孟子要略》·《예서禮書》(의례전통해儀禮經傳通解)·《한문고이韓文考異》·《서전書傳》·《초사집주후어변중楚辭集註後語辨證》 등이 있다. 더욱이 71세로 생애를 마치던 해 3월 《대학》의 ‘성의장誠意章’을 개정改訂한 점으로 미루어 그의 《사서집주四書集注》에 대한 지극한 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엿볼 수 있다. 주자의 정치에 대한 의견은 ‘임오옹조봉사壬午應詔封事’나 ‘무신봉사戊申封事’에 나타나 있으며 또 절동浙東의 지방관으로 있을 때 대기근大飢饉을 구제하였다는 실적도 있으나 만년에는 권신의 미움을 사 그의 학문이 위학偽學이라 하여 많은 박해를 받았으며, 해금解禁이 있기 전에 죽었다. 그후 그의 학문이 인정되어 문언이라는 시호가 내리고 다시 태사太師·회국공徽國공이 추증追贈되었다. 그의 유언을 수록한 것으로는 주자의 막내아들 주재朱在가 편찬한 《주문공문집朱文公文集》(10권, 속집 11권, 별집 10권)이 있고, 문인과 평생문답을 수록한 여정덕黎靖德 편찬의 《주자어류朱子語類》40권이 있다. ◎사숙私淑 :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으나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본받아서 도나 학문을 닦음.

淳熙己酉二月甲子, 新安朱熹序。

순희기유이월갑자, 신안주희서。

순희 기유년 2월 갑자일甲子日에 신안新安 주희가 서문을 짓는다.

【주】◎순희淳熙 : 남송南宋 효종孝宗의 연호年號이다. 기유년己酉年은 순희 16년, 서기 1189년이고, 신안新安은 주씨朱氏의 본관本貫이다. 이 때 주자의 나이 60세였다.

정통육효비전正統六爻秘傳
야학노인점복전서

野鶴老人占卜全書

기초편·응용편
전2권이아평李我平 감정鑑定
야학노인野鶴老人 저著
이문휘李文輝 증산增刪

권오달權五達 태로太爐 역주譯註

011-9598-0852e-mail : kod0852@naver.com

도서출판小康 발행

부산 서구 동대신동 2가 289-6
전화 051)247-9106 팩스 051-248-2176
값 기초편 10,000·응용편 15,000원